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및 제11대 회장 선임



올

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은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지난 2월 23일 서울올림픽 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연합회 임원을 비롯해 전국의 19개 지역협의회 대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1주년 기념식 및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2년간 연합회를 이끌어 갈 제11대 회장과 감사를 선출했다.

제1부 기념식에서는 환경기술인 대표로 본 연합회 김기섭 팀장의 환경기술인이 실천해야 할 '환경기술인 현장' 낭독을 시작으로 본회 이상호 회장의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 기념사, 본회 이용운 초대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을 다각화·고도화해 세계의 환경기술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일층 매진하고, 환경기술 분야의 선도적 단체로 발전해 나가야 함은 시대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용운 초대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환경기술인들의 끊임없는 탐구정신과 창의력으로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육성, 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환경기술인들이 기술 습득, 자기 개발 및 연구, 자격증 취득 등에 더 분발하고 위치 확보에 만전을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경기술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환경단체로 거듭나지"라고 피력했다.

한편 식전행사에서는 울산협회의 선병수 전임회장이 '중량법에 의한 굴뚝배출가스 중 먼지 측정 오차분석'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협찬사인 (주)동일그린시스와 동문과학상사의 IR을 가졌다. (주)동일그린시스는 환경오염 측정기 및 원격감시시스템의 설치, 환경감시 시스템 업무의 유지보수 관리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일괄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선진정보 기술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 환경오염감시 시스템의 신뢰화, 체계화된 기술의 보급과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 및 A/S 체계를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문과학상사는 각종 환경분야(특히 수질, 해양, 지하수 및 토양 등)에 풍부한 사업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며 첨단 실험기기 공급에서 최상의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사업분야로는 자동화 플랜트 사업 분야, 해양환경 TMS, 수자원 환경, 기기분석 및 측정 등이며 수질 환경 모니터링에 있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 지원체제를 확립해가고 있는 회사이다.

이어 본 연합회 박전수 수석부회장, 김우식 수도권부회장, 이귀향 수도권부회장, 김명제 경인권부회장, 하용철 경인권부회장, 박천상 중부권부회장, 한상은 호남권부회장, 김남환 영남권부회장, 안철영 영남권부회장, 김완배 이사, 김휴선 이사, 윤병찬 이사, 윤종문 이사, 정태환 이사, 이승제 이사, 이영서 이사, 손점숙 이사, 이종영 감사, 원유필 감사를 비롯해 경기서부환경기술인협회의 직전회장 김현철, 울산환경기술인협회의 직전회장 임주원 등 재임기간 동안 본 연합회와 지역협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큰 연합회 임원과 지역협회의장에게 공로



▲ 박천상 신임회장이 당선 후 취임 연설하는 장면



▲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



▲ '환경기술인 현장' 낭독 장면

패 수여가 있었다.

또,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환경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국가환경보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SK케미칼주식회사와 (주)혜성환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참석자 모두 한마음으로 환경기술인의 노래 제창으로 1부 기념식을 마쳤다.

제2부 총회에서는 이상호 회장의 성원선포 후 2006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신입회장 및 임원 선출,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경인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열어갈 주인공이며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기술력 향상으로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사회발전과 국제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회장선거에서는 박천상 본회 중부권부회장과 권기태 반월시화공단협의회장이 경선에 임해 박천상 부회장이 전체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 앞으로 2년간 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박천상 회장은 당선 후 취임사에서 “전국의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 연합회와 지역협의회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정성과 능력을 다해 정직하고 연합회 운영에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할 것이며, 약속을 실천하고 책임질 줄 아는 참다운 일꾼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으로 소임을 다하고 본 연합회를 6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이끌어 온 이상호 전임회장에게 공로패 수여와 행운의 열세를 전달했다.

한편 선출직인 중부권 이북 감사에는 하용철(인지에이엠티(주) 공무팀 부장) 전 경인권부회장이, 중부권 이남 감사에는 안철영(우방상사 대표) 연합회 전 영남권부회장이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연합회는 올 한해 환경기술인의 기술력 향상과 전문성 구축 및 위상 강화에 주력하기로 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회원 활동 강화 및 전문 기술력 향상,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 사업 개발 및 협의회 활성화, 산학연관과 업무협력체제 구축 및 연대강화로 조직 활성화에 사업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본 연합회는 ▲신임 임원과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환경부 정책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 전시회 ▲제3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 규모 확대 ▲환경기술인력 창출방안 세미나 및 토론회 ▲대한민국환경기술장, 모범졸업생 표창 ▲국제환경기술전 전시회 및 세미나 실시 ▲회관건립기금 모금 활성화 ▲환경기술 지원제도(환경홈다터) 활성화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실시 ▲출판기획 사업 추진 ▲해외 산업시찰 및 전시회 참관 ▲연합회 임원 및 지역협의회 장단 워크숍 실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실시 추진 ▲환경기술인 교육연수원 설립 추진 ▲환경관련 전문교육 기관지정 및 예산확보(환경부) ▲환경기술인 경력인증 시스템 마련 ▲명예회장 제도 추진 등의 중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

박천상(朴天祥) 회장 프로필 * *

생년월일 : 1962년 2월 25일생

〈학력 및 경력사항〉

- 1984. 2 대전보건대학 환경관리과 졸업
- 1993. 2 한밭대학교(대전산업대) 공업화학과 졸업
- 1989. 1 대전보건대학 환경관리과 동문회장 역임
- 1990. 1 (사)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감사 역임
- 1991. 2 대전·충남환경관리인협의회 감사 역임
- 1994. 1 대전·충남환경관리인협의회 회장 역임
- 1994. 2 (사)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중부권부회장 역임
- 1996. 1 대전보건대학 총동문회장 역임
- 2007. 1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중부권부회장 역임
- 대전·충남환경기술인협의회 명예회장(현)
- (사)한국폐기물학회 대전·충청지역회 부회장(현)
- (사)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중앙회 이사(현)
- 대전보건대학 총동문회장(현)
- 대전보건대학 환경보건과 발전위원회 위원장(현)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산·학 협력위원장(현)
- (주)티케이(TOP KOREA) 대표이사(현)
- (주)프리트릭 공장장(이사)(현)

〈상훈〉

- 1991. 6 (사)환경보전협회장 표창
- 1992. 6 대한민국환경관리장 노력상 수상
- 1992. 12 대전직할시장 표창
- 1994. 6 환경처장관 표창
- 1994. 6 세계환경의 날 기념 대전 MBC기획 맘 흘리는 사람들 선정



▲ 이상호 회장 기념사 장면



▲ 박천상 신임회장(우)이 이상호 전임회장(좌)에게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는 장면